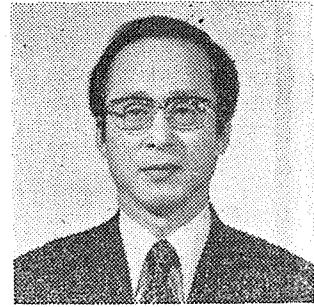


林學界의 今昔

韓國林學會 會長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任 慶 彬 교수

우리나라의 林學은 戰後 황무지와도 같은 벌판을 開拓해 왔다고 볼수 있다. 事實 光復直後는 社會秩序 政治秩序의 混亂으로 學界의 體統같은 것은 생각할수 없었고 그 整理에 着手한다는 것도 쉽게 될수 없었다.

林業技術 같은 것은 멀리 李朝의 實學에 까지 찾아 볼수 있으나 戰前 우리나라에서 林學다운 教育이 實施된 곳은 現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의 前身인 水原高等農林學校 林學科라고 볼수밖에 없다. 이밖에 주로 日本의 大學 또는 高等農林學校에서 修學한 분들이 林學의 礎石으로서 開拓이라는 어려운 試鍊앞에 서게 되었은 것이다.

所謂 解放이란 것은 當時 모든것은 白紙狀況에서 出發시켰다. 이의 例外가 될수 없드시 林學도 寸치머리부터 실을 풀고 마디를 맺어 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戰後 약 30년이 흘렀는데 일단 이것을 10年을 區分해서 그간의 林學界의 性格을 살펴본다.

(1) 1945~1955年時代

林學을 專攻하였는 사람들이 일단 모인곳은 水原高等學校 林學科였고 一部人士는 官界에 자리를 잡았다. 學界라는 것은 그 構成要素가 結局 人間이기 때문에 學界를 云謂함에 있어서는 사람을 떠나서 말할 수 없다.

勿論 學問하는 사람들이 學術의 性格과 方向을 形成하고 이 性格과 方向이 그곳에 集合하는 學徒들을 吸引同化해서 그 性格과 方向을 改善하던지 充實하게 하던지 또는 그自體를 살찌게 하던 그것은 學風이나 學派를 이루게 되겠지만 學問의 潮流形成은 긴 歲月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것은 생각할 수 없는 時代였다.

서울大學校를 위시해서 高麗大學校 建國大學校, 東國大學校 그리고 國公立 各道大學이 設立되자 林學科가 생겨나고 이곳에서 林學이 講義되기 시작하자 林學의 幼芽가 地殼을 뚫고 大氣

를 呼吸하게 된 것이다.

그당시의 林學은 日本林學의 餘韻으로 濃厚하게 彩色된때인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事情이다. 日本의 氣候風土, 그리고 樹種에 있어서 共通性이 많고 또 社會的 經濟的背景 또는 歷史性 등에 있어서 類似性이 많은 까닭에 日本林學(이것은 곧 독일林學의 流라고 하는데)의 曳리는 그것이 나뉘지도 않았다.

1935年代부터 日本의 政策이 매우 國粹主義의 이면서 한편으로는 閉鎖的인 性向이 있어서 1945年直後의 우리의 林學은 어느側面으로 보아서는 固陋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우리나라에 上陸하기 시작한 것이 英美林學이었는데 이것은 既往의 林學體質과 어떤 뚜렷한 性格上 差異가 있는것이 아니라 所謂 推理統計學의 開拓에 의한 學術의 再評價 또는 統計的 確認이란 것이 骨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戰後 初期의 林學은 直觀이나 達觀에 依해서 判斷되는 現象의 肯定이 곧 學理라는 것으로 받

아 들어졌다. 林産資源의 造成은 macro 環境에서 生命을 取扱하는 技術이므로 相當한 領域안에 있어서 이러한 接近法이 無難하였지만 모든 生物科學의 進行이 그러하듯이 林學의 領域도 이러한 狀況에 安住할 수 없었고 이에서 脫出하는 原動力이 된 것이 바로 現代統計學이 었던 것이다.

事物을 보는 눈이 主觀에서 客觀으로 옮겨가는 時代가 바로 이때 었다. 客觀으로 본 妥當性이 既往의 主觀價値를 그대로 받아드린것이 많았지만 우리의 分析과 綜合의 基本概念과 態度에 變質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世界的인 潮流를 탄것으로 볼 수 있다.

全國의 林學徒가 처음 모인 곳이 바로 韓國農學會였다. 農林畜, 園藝, 農經濟, 養蠶등 모두가 學會의 테두리를 만들었고 우리나라 林學의 集合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도 6.25 動亂으로서 모든것이 일단 中斷을 보게 되었고 動亂後 災禍復舊가 進展될때 林學의 補強도 모색되었고 資質向上策으로서 教授들이 美國에 派遣되어서 訓練을 받게된 것은 林學發展을 위하여서 主要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무릇 學問이란 것은 開拓者 또는 先驅者에 의해서 인도되고 그傘下에 人材가 모이게 되는 것이고 또 學問의 指導能力을 갖춘 碩學下에 學術의 門이 열리기 마련인데 이時期에 있어서 林木의 品種改良, 또는 林木의 遺傳性分析이 燎原의 炬火처럼 燎原을 쓸었고 그 手段으로서 無性繁殖의 理論과 技術이 流行의 波高를 占해서 계속 흘렀다.

無性繁殖의 手段이 過去 造林學의 一部知識으로서 다루어진 것이지만 그 意義가 林木改良의 手段으로서 再認識되자 이것이 遺傳育種分野의 道具로서 轉入시켜간 느낌이 있기도하다.

이와같은 學校以外에 清涼里의 中央林業試驗場, 그리고 6.25動亂以後에 생겨난 林木育種研究所는 林學을 精鍊하는 道場으로 되었지만 財政難과 一部는 人材難으로서 充分한 機能의 發

揮가 될수 없었다.

이時代는 秩序의 혼란가운데 勵起상태에 있었던 個人이 自己의 位置를 찾아 安定으로 허리를 낮추던 때라고 볼 수 있다.

1955년에 韓國農學會誌 1號가 나왔다. 따라서 이期間중에는 林學論文의 發表가 極히 稀少하였던 것이다.

(2) 1956~1965年時代

大體로 1960년까지 初期段階의 教授海外訓練이 끝나고 이 期間중에 매우 발달하고 意慾的인 研究氣風이 불게되었다.

林學徒가 韓國農學會의 傘下에 集合하여서 學問과 技術을 다루었는데 1962년에 비로소 韓國農學會誌에서 벗어나 『林業과 林學』이란 題號로 林學會誌가 나오게 되고 이때부터 研究論文등이 每年 世上에 빛을 내게 되었다. 이雜誌의 英文題號가 『Korean Forestry Journal』로된 것은 苦笑을 자아내지만 1962년에 韓國林學會라는 이름아래 역시 題號가 『林業과 林學』으로 된 林學會學術誌가 刊行되고 있다.

이때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林業과 林學』이란 이름으로 學術誌를 내었다. 무슨이유로 이때까지 韓國林學會誌라는 名稱으로 바꾸지 못했는지 알수 없다. 1966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韓國林學會誌라는 現在의 題號를 가지게 되었다. 1965년까지는 每年 한권의 學會誌를 낸것인데 1965年 Journal of Korean Forestry Society로서 第4號를 出刊했다. 1963년에 3號가 나왔으니 1964년에는 學術誌가 出刊을 보지 못했다.

韓國林學會는 會員構成이 正會員과 準會員 그리고 特別會員이었는데 正會員은 教授, 教師, 研究官, 林業公務員 또는 林業에 關心을 가진 人士로서 構成되었고 이것은 現在의 會員構成資格과 다름이 없다.

이때 會員의 一部에 있어서는 學理에 기우려진 學術誌에 興味를 잃고 一般林業記事를 다루는 學會誌의 刊行을 希望하자 1964년에는 學術誌대신에 『林業界』의 創刊號가 나왔다.

林業界 창간호는 韓國林學會에서 낸것인데 이

것은 創刊號로 끝나고 그 이후 계속되지 못했다. 林業界의 創刊號는 筆者가 편집을 보았는데 이 책은 稀貴의 價値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 林學會의 歷史의 重要한 陣痛을 말해준다.

林學研究論文이 林學會誌에만 掲載된 것이 아니고 各大學의 論文集 또는 試驗場과 研究所의 研究報告集에도 게재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林學會의 回顧라는 性格에 立脚해 있으므로 林學會誌를 主對象으로 해본다.

1965년까지 學術誌는 不過 4卷밖에 나오지 않았고 發表論文總書가 40餘篇밖에 되지 못하여 10年間의 平均으로 보면 年間 4~5권의 論文으로 되어서 아직 研究의 姿勢와 實質이 虛한 時代라고 볼수 있다.

이時期에는 個人的 經濟도 安定이 못되고 社會自體가 振動을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또 研究施設이나 研究費같은 것이 不足했기 때문에 學術의 열매를 收獲할 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一面 無理였다.

그러나 現在 博士學位를 받은 몇분들의 學位論文의 첫썩들이 이때 나타나고 있다. 가령 林木種子의 識別研究, 收穫表調製, 韓國林政史, 樹木의 無性繁殖法研究, 참나무의 系統分類研究 竹類研究 등은 이때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인데 이러한 論文은 그뒤 研究가 계속되어서 學位論文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時代는 學術이란 것이 눈뜨고 그것이 成熟을 향해서 나아가던 때이다. 이때에는 林學徒의 絶叫같은 것이 林業行政當局에도 많이 反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學問의 系統이라 할까 學術研究 또는 開發에 어떤 整備된듯한 方向性 乃至 體系 같은 것은 아직 엿보기 힘든 時代였다.

(3) 1966~1977年(現在) 時代

1966年 2월에 韓國林學會에서 學術誌의 題號를 「韓國林學會誌」로 바꾸어 出刊했다. 1968年度까지는 第1卷식의 學會誌를 내었고 1969年에서 1971년까지는 每年 2권을, 그리고 1972년에는 年 3권을, 1973년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年

4卷의 學會誌를 刊行하게 되었다.

이러한 事實은 이時代에 들어와서 林業에 關한 學術의 研究가 매우 活潑해졌다는 것을 意味한다.

1950年을 前後해서 大學의 歷史가 序章을 썼기 때문에 1970年代가 되면 그때 學業을 마친 사람들의 經歷이 20年 以上으로 되었고 年齡도 大體로 50을 바라보는 層이 두터워졌다. 이것은 林學의 成熟을 意味하기도 한다. 이時期에 들어서자 各大學의 講義가 安住하게 되었다. 戰後에는 우리나라 林學과 林業의 主體를 파악할수 없어서 外國林業의 轉問 또는 번역의 냄새를 많이 풍겼지만 그間 우리의 調查研究가 많이 蓄積되어서 內實을 期할수 있었든 것이다.

政府에서 森林資源造成에 力點을 두고 끈질기게 밀어 왔던 까닭에 學術과 實際가 併進한 것은 多幸된 일이라고 볼수 있다. 이제 30名을 훨씬 넘고 40名을 바라보는 林學關係의 博士學位 所有者가 배출된 것을 생각할 때 感概無量한바 없지않다.

林學徒들이 읽어볼수 있는 單行本이 各分野에 걸쳐 刊行되고 있고 外國學界와의 交流도 잘되어서 이제 우리 林學은 世界와도 제휴해가면서 隊列이 가다듬어진 感이 있다.

林學의 分野가 基礎, 生産, 利用, 政策, 經濟 등 多岐에 亘하고있어서 그間 林産利用加工分野가 林學에서 分離된 것은 그만큼 林學의 深度가 確立된 것이고 慶賀할 일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造景學 分野가 다시 分派된 것도 林學의 어찌할 수 없는 溢出에서 온 것으로 볼수 있다. 造景學은 所謂 multidisciplinary 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어디까지나 美와 國致를 만드는 骨格은 自然物이고 自然의 主軸이 樹木群이기 때문에 造景分野는 林學의 派生物로 보는 것이 가장 妥當한것 같다.

國立公園, 都市公園, 産業地區, 農村등의 美化和 景觀造成의 課題가 造景으로 集約되어 林業의 移住가 있는 것은 우리는 반갑게 생각한다.

이와 같이 이 時期에 있어서는 林學의 膨脹이

裂開를 가져와서 隣接學界를 形成한 것은 重要한 意義를 가진다.

林學徒가 林學會에 모이고 韓國林學會가 國際林學會聯合會의 機關會員으로 되어 世界의 林學者들과 어깨를 겨누고 높은 步調를 취하게 된 것은 그間 우리나라 林學人의 부지런하고 즐기찬 努力의 結實이라고 볼수 있다.

(4) 우리나라 林學界의 未來

林學界는 深奧한 學理와 水準 높은 技術을 探究하고 있는 林學人들이 모여 어떤 價値形成을 하고 있을때 그 價値의 性格, 內容, 程度 등에 대한 概念으로서 把握되는 것을 意味한다.

이러한 定義下에서 林學界라는 것은 그 要素의 構成으로 모아 教育機關의 貢獻分野, 研究機關 그리고 行政機關의 貢獻分野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教育機關에 있어서는 林學徒의 養成이란것과 研究를 兼하고 있다.

前考 教育의 面에 있어서는 尙今 우리가 크게 反省하지 않으면 안될點이 있다. 質보다는 量產 傾向인데 人力으로보아 需要以上の 사람이 양성되고 있다. 敎授들의 研究도 주요한데 研究費의 長期的補助가 林業에 있어서는 특히 要求되고 있다.

大體로 1年기준의 低額研究費가 그것도 交代되어가면서 보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狀況에서의 林業部門研究는 어렵다. 그것은 나무의 生理는 農作物처럼 1年生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우리나라의 林業의 問題點 發掘에 安易하게 對急하고 있는 感이 있다. 問題解決에는 緩急이 있고 筆者로 하여금 그대로 評하라면 훨씬 뒤로 돌려도 相關없을 課題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指摘할 수 있다.

學問의 發展은 研究로서 成就되는 것이며 研究는 努力만을 가지고 해결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銳智를 가진 先導者의 力量이 研究成果擧揚에 決定的役割을 하게되는 것이다.

앞에서 指摘했지만 研究라는 것은 그 結果가 人類福祉에 어느정도로 貢獻하느냐에 焦點을 두

어야 한다. 學問을 發展시키는데는 偏見이란 것은 禁物이다. 아직도 우리 들에게는 安易 같은 것이 있고 陳腐한 것이 많이 율추리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林學이 木材生産에만 置重하는 傳統을 相當量 벗어나서 적어도 國學的 眼目 또는 地域的 또는 가령 水系(江)를 테두리로 하는 廣域의 研究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林學中 林産資源의 造成에 관한 부문에 있어서는 山地試驗이 많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實情이 아직 事務室內 또는 建物周邊의 研究活動에 급급하고 있는 것은 남아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外國에서 訓練받은 사람이 그 訓練課題에 미련을 가지고 그것을 곧 우리 나라에서의 연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상당한 無理를 가져오는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 나라 林學發展 또는 林業建設에 꼭 金요한 것이라면 모르지만 外國에서 興味있게 한 일이면 그것을 그대로 導入하는 어리석음 같은 것을 느낀다. 方法을 배우고 資質을 培養했다면 우리의 課題를 發掘하고 處理해야 우리의 林學界에 모방을 떠난 主體性 있는 黎明을 가져올 수 있다.

自家用 風力發電機

自家用 風力發電機를 西獨의 프레던 大學의 敎授와 學生들이 開發하고 있다. 이 미니風力發電所로 家庭에서 必要한 에너지를 공짜로 얻게 될 날이 꿈만은 아닌 것 같다 大學建物の 屋上에 設置한 이 實驗裝置는 좀 색다른 風車인데 獨立住宅用으로 設計 된것이다. 그러나 研究員들의 말에 의하면 各 家庭이 이 연구로부터 혜택을 받을려면 앞으로 3年을 기다려야 한다고(DAD).